

집단지위 정당성, 지위안정성 및 집단정체성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영향 : 성차별과 학벌차별을 중심으로

김혜숙
아주대학교

박수미
여성개발원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 조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별 지각과 경험의 실태를 검토하고, 집단의 지각된 사회 구조적 요인들(즉, 지위정당성, 지위안정성)과 집단정체성이 차별지각과 경험(상대 박탈, 차별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성인 남녀 200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 사람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은 장애인, 학벌이 낮은 사람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각하였다. 또한 예상대로 여성 혹은 비명문대 출신들은 남성 혹은 명문대 출신들에 비해 기존의 집단 지위의 정당성이 약할수록 더욱 차별 경험(즉, 상대적 박탈감 등)을 많이 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성은 사적 정체성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을 더 많이 했다고 지각하였고 반면 명문대 출신들은 사적 정체성이 높을수록 차별을 덜 경험했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집단 지위의 안정성 효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를 사회정체성 이론과 체제정당화 이론에 비추어 조명하고 아울러 그 실제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차별경험, 차별지각, 집단지위 정당성, 집단지위 안정성, 사회정체성

한 사회의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집단 범주에 의해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차별당하고 있다고 지각할 때 그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더 커진다. 소수 집단이 받는 부적인 대우는 그 원인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은 원인 파악이 애매할 수 있는데 (Crocker & Major, 1989), 자신이 받는 부정적인 대우나 성과가 차별 때문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안녕감(Crocker, Cornwell, & Major, 1993; Crocker &

Major, 1989; Major, 1994; Ruggiero & Taylor, 1995, 1997), 집단 정체감(Branscombe, Schmitt, & Harvey, 1999; Jost & Banaji, 1994), 대인관계(Kaiser & Miller, 2001), 그리고 집단간 갈등(Branscombe 등, 1999)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소수집단 구성원들은 자신이 차별 당하고 있다고 지각한 결과, 자존감이 저하되고, 자신의 집단에 대한 정체감의 약화를 경험하거나(Jost & Banaji, 1994) 혹은 그 반대로 사회의 부당함에 대한

본 연구는 한국 여성개발원이 주관하는 인문사회연구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김혜숙은 아주대학교에 재직하고, 박수미는 여성개발원에 근무하고 있음.

교신저자 : 김혜숙, (442-7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사회대 심리학과, 전화 : (031) 219-2770,

E-mail : hsk@ajou.ac.kr

비판과 불만이 커지게 되고 자신의 집단에 대한 동일시가 오히려 높아지며 따라서 사회의 갈등이 증폭되게 되기도 한다(Crocker & Major, 1989; Turner & Brown, 1978). 또한 소수 집단의 구성원은 자신의 집단의 낮은 지위를 차별에 의한 것으로 지각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자아존중감이 유지되기도 한다(Crocker & Major, 1989; Crocker, Cornwell, & Major, 1993; Crocker, Voelkl, Testa, & Major, 1991). 그러나 한편, 많은 경우 소수집단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 평가나 거부에 대해 자신의 집단 범주에 근거한 차별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 부족이나 노력 부족으로 해석한다(Ruggiero & Taylor, 1995, 1997). 이와 같이 소수 집단이 사회에서 받는 대우를 차별로 지각함에 따른 영향력이 포괄적이며 중요함을 볼 때, 한 사회에서 여러 유형의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지각이나 차별 지각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 또한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로 인한 갈등은 이제까지 주로 지역, 성별, 세대간 및 계층간 관계에 있어 발생해 왔으며, 최근 들어 학벌이나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및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주요 사회갈등의 요소로 새로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주로 성 갈등과 지역 갈등에 대한 연구들로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 지역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편견적 태도와 그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자아존중, 동기, 편파적 정보처리, 사회정체감 등의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김범준, 2002; 김진국, 1987; 김혜숙, 1988, 1993; 박군석, 한덕웅, 2003; 송관재, 이훈구, 1993; 안신호, 2000; 홍영오, 이훈구, 2001)과 성편견에 관한 척도개발(양성평등신념 및 행동의도의 측정, 실태의 조사 등)(김양희, 정경아, 2000; 김금미, 한영석, 2002; 김금미, 한덕웅, 한영석, 2003; 정진경, 1990; 김영희, 1995)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기존의 심리학 연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소수 집단인 대상을 집단 범주에 근거하여 고정관념화하고 편견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탐구에 치중되었다. 최근 들어 탈북자(정진경, 2000) 등의 소수 집단 구성원들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들(정진경, 양계민, 2004)이 일부 수행되었으나, 아직도 어떠한 상황에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소

수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집단 범주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귀인하게 되는가에 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한편, 다수 집단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부여되는 낮은 평가나 지위를 차별(즉, 역차별)로 귀인할 수 있다. 이미 여성이나 소수 인종을 위한 적극적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실시해 왔던 미국에서는 종전의 다수 집단이었던 백인 남성이 새로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도 한다(Kobryniewicz & Branscombe, 1997). 물론 백인 남성 집단이 아직도 여전히 지배 집단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누렸던 것만큼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사회에서 소수집단을 위한 적극적 정책 등의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수 집단의 역차별지각과 불만 혹은 법적 대응이 커져 가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기존의 소수 집단들에 대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호남의 정치세력이 여권으로 등장하였고,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여성 할당제가 확대되고 있고, 지방 학생들에 대한 서울대 입학 할당제 등도 거론되고 있다. 기존의 정치적 기득권층이, 남성들이, 서울의 학생들이 그들이 받아왔던 혜택들이 줄어드는 것을 차별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소수 집단에 대한 적극적 정책의 노력이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으나 역차별지각 현상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임을 예견해 볼 때, 다수 집단이 지각하는 역차별의 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수 집단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차별지각에 대한 미국 중심의 연구들은 한 개인이 집단 범주에 근거한 차별을 지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구조, 자아존중감이나 집단정체감, 평가자에 대한 인식 등 개인적인 요인들을 밝히는 데 치중되어 있다. 즉, 이들 연구들은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예를 들어 여성, 흑인, 히스패닉 등)이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지각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Inman과 Baron(1996)은 사람들이 차별상황에 대한 전형(prototype)을 갖고 있어서 특정 상황을 더욱 차별상황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보았다. Quinton과 Major(1997)는 집단 정체감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평가자가 편견이 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불공정한 상황에서 소수 집단인 여성들이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더욱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부적인 평가를 차별로 귀인함으로써 자존감이 유지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Crocker와 Major(1989), Crocker, Voelkl, Testa 및 Major (1991)도 평가자가 편견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평가자가 참여자를 볼 수 있어서 흑인임을 안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여성과 흑인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 평가를 편견에 의한 것이라고 귀인하였고, 그 결과 그들의 자아존중이 보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소수 집단의 사람들의 경우, 매우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이 차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Ruggiero & Taylor, 1995, 1997). 이러한 현상은 소수 집단 사람들이 자신들이 차별받는 대상이라고 지각함으로써 갖게 되는 통제감의 상실이나 사회적 자아존중의 저하, 또는 사회적 소외를 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Kappen & Branscombe, 2001). 또한 인종이나 민족, 사회집단에 걸쳐서 소수 집단의 사람들은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자신의 집단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Crosby, Pufall, Snyder, O'Connell, & Whalen, 1989; Taylor, Wright, & Moghaddam, & Lalonde, 1990; Taylor, Wright, & Porter, 1993).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성과를 차별로 지각하고 귀인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위에서 소개한 보다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요인들뿐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관련된 요인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이론은 사회정체이론(Social Identity Theory : Ellemers, Doosje, & Knippenberg, 1992; Ellemers, Knippenberg, & Wilke, 1990; Ellemers, Wilke, & Knippenberg, 1993; Hogg & Abrams, 1988; Spears, Jetten, & Doosje, 2001; Tajfel & Turner, 1979, 1986; Turner & Brown, 1978; Wright, Taylor, & Moghaddam, 1990) 과 체제정당화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 Jost, 1995, 1997; Jost & Banaji, 1994; Jost & Burgess, 2000; Jost, Burgess, Mosso, 2001; Kay & Jost, 2003; Martin, 1986; Major, 1994; Major, Gramzow, McCoy, Levin, Schmader, & Sidanius, 2002; Major & Schmader, 2001; Olson & Hafer, 2001;

Tyler & McGraw, 1986)이 있다. 이들 이론들은 집단의 지위, 지위 정당성 및 안정성과 같은 지각된 구조적 요인들이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내집단 편애 및 차별 지각을 하도록 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정체 이론은 차별지각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으나, 차별지각과 귀인이 내집단편애와 사회정체성의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볼 때 지위정당성이나 안정성과 같은 지각된 사회구조 요인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접적으로 예측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체제정당화이론은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특히 지위 정당성)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회정체이론

사회정체이론(Tajfel, 1982; Tajfel & Turner, 1986; Hogg & Abrams, 1988)은 사람들에게 자아존중을 높여주는 동기가 있어서 이를 위해 긍정적인 사회정체를 추구한다고 보며 이 과정에 주관적으로 지각된 집단의 지위와 그 지위의 정당성 및 안정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관여된다고 보았다(김금미, 한영석, 2002; 김금미, 한덕웅, 한영석, 2003; 박군석, 한덕웅, 2003;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 2004; Turner & Brown, 1978; Turner, 1978; Mummendey, Kessler, Klink, & Mielke, 1999; Ellemers, Knippenberg, & Wilke, 1990; Ellemers, Wilke, & Knippenberg, 1993; Ellemers, Doosje, & Knippenberg, 1992). 즉, 사회정체이론은 집단의 지위와 지위의 정당성 및 안정성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내집단 편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정체 이론은 사람들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내집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외집단을 낮춘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집단 편애 과정에 집단 지위, 지위 정당성 지각 및 지위 안정성 지각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개입하게 되는데, 권력이 있는 다수 집단과 권력이 약한 소수 집단이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 서로 다르게 영향 받는다고 보았다. 즉, 만약 집단간 경계가 침투가능성이 높아(permeable) 이동이 용이하다고 지각된다면 소수 집단 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 권력이 큰 다수 집단으로 이동하고자 할 것이다(사회적 이동). 이러한 경우 소수 집단 성원들의 집단정체성은 약화되고 오히려 다수 집단에 대한 동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소

수 집단 구성원 개인들 중 일부는 그 지위를 변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수 집단 자체는 중국에는 와해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정체 이론은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개인적 (지위)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신념을 가지는 경우 집단정체성이 낮아지고 다수 집단과의 동화가 일어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사회 이동이 별로 가능하지 않고, 또한 자신들의 낮은 지위가 정당하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집단간 경쟁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의 집단에 부여된 낮은 지위가 그 정당성이 약하다고 지각할수록 내집단 편애가 높아지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부당성 지각이 높아져 내집단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사회운동 등에 동조할 수 있다(사회적 경쟁). 또한 소수 지위의 안정성이 낮아 변화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내집단 편애가 높아진다. 그러나 개인 이동은 가능성이 낮으면서 소수 집단의 지위가 정당한 근거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지각되고 또한 이러한 지위 차이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각된 경우에는 사회 경쟁의식보다는 다른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에 대응한다(사회적 창의성). 즉, 자신들이 보다 유리해 보이는 새로운 차원에서 다수 집단과 비교하고자 한다든지, 혹은 자신들이 불리한 (따라서 자신들이 소수 집단으로 되게 만드는) 기존의 사회비교 차원의 가치를 평가절하 한다든지 혹은 자신들의 집단보다 더욱 약세인 집단과 하향비교한다든지 등의 대응 전략들이다.

사회정체 이론은 다수 집단 구성원의 경우에는 소수 집단 구성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집단 편애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안한다. 즉, 개인적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신념을 가질수록 다수 집단 구성원은 내집단 편애를 더욱 강하게 가질 것이다(소수 집단 구성원의 경우에는 반대되). 또한 다수 집단 구성원들은 그 지위 정당성이 높고 지위가 안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내집단 편애가 강해진다. 그러나 지위정당성이 낮거나 안정성이 낮다고 지각되는 경우에는 내집단 편애가 약해질 것이다.

사회정체 이론을 검토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면, 우선 집단의 지위와 정당성 및 안정성의 세 구조적 변인들에 대한 Turner와 Brown(1978)의 실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저 지위 집단의 경우 부당-불안정 조건에서만 내집단 편애가 나타났고 다른 세 조건

들(정당-안정/정당-불안정/부당-안정)에서는 외집단 편애가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적인 예상대로 고 지위 집단원들은 네 조건에서 모두 내집단 편애를 보였다. Ellemers 등(1993)은 저 지위 집단원이 자기 집단의 낮은 지위가 불공정하고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부여된 것으로 지각하게 되면 사회적인 응집력이 생겨나서 집단정체감이 부각된다고 보았다. 집단 정체감의 부각은 내집단 편애 반응을 이끌어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금미, 한덕웅, 한영석(2003)이 남성의 양성평등 행동 의도가 성별 지위 및 지위의 정당성 그리고 안정성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보여 주었다. 즉, 남성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지위의 정당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지위 안정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성별 사회정체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양성평등 행동 의도를 덜 나타내게 되었다.

요약하면, 사회정체 이론은 한 사회의 소수와 다수 집단이 자아존중을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 사회 정체와 내집단 편애를 나타내는데, 이는 집단 지위, 지위의 정당성 및 안정성과 같은 지각된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소수 집단 사람들은 자신들의 낮은 지위가 정당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다고 지각할 때 내집단 편애를 나타내고, 한편 다수 집단 사람들은 자신들이 차지하는 (높은) 지위가 정당하고 안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내집단 편애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정체 이론은 다수와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이러한 지각된 사회구조 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다르게 영향받아 차별을 지각하고 귀인하게 되는 지에 대해 직접적인 예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이론은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 사람들이 집단 지위의 정당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지각에 의해 내집단 편애가 달라진다고 보는데, 차별 귀인과 지각도 이러한 사회정체성과 내집단편애의 간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수 집단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낮은 지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지각할 때 차별 경험과 귀인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내집단편애를 보이게 될 수 있다. 한편 다수 집단 사람들은 자신들이 차지하는 (높은) 지위가 정당하고 안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소수집단이 차별받는다는 것을 부인할 것이며 내집단 편애가 높아진다.

체제정당화 이론

체제정당화 이론(Jost, 1995; Major, 1994)은 한 사회의 소수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disadvantage)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성(construe)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이러한 해석과 구성화가 소수 집단의 자아존중감, 안녕감 및 사회 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흔히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와 체제를 정당한 것으로 지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다수 집단은 체제정당성을 지각함으로써 자신의 집단이 누리는 높은 지위를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집단을 높게 된다. 이 이론은 역설적이게도 소수 집단의 경우도 체제정당화를 지각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본다. 즉, 한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수 집단의 경우에도 자신들에게 부여되는 낮은 지위나 자신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정당하고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집단을 비하시키고 외집단을 오히려 편애하는 모순된 현상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와 지위를 접하도록 하는 현재의 체제를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의 부당성을 인내하여 체제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주로 내집단 편애를 다루고 있는 사회정체 이론과 달리 한 사회의 소수 집단이 드물지 않게 외집단 편애를 나타내기도 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 이론은 따라서 내집단편애와 외집단편애 현상뿐만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다수와 소수 집단이 경험하는 차별 귀인 혹은 지각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위정당성 지각을 지적하고 있다. 이 이론은 또한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집단이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이나 불리한 지위에 대한 해석과 구성화에 있어 차별로 귀인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현상으로 이러한 불리한 성과의 중요성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체제정당화 이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연구로 Jost(2001)가 있다. Jost(2001)는 경쟁 집단들(두 지방대학) 간의 사회경제적인 성공에 대한 지각과 사회경제적 차이의 정당성 정도를 조작하여 집단 지위의 고저와 정당성을 조변하였다. 내집단 편애와 외집단 편애 정도를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된 고정관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

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저 지위 집단은 외집단 편애를 나타내는 반면에 고 지위 집단은 강한 내집단 편애를 보였고 지위와 정당성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또한 고-정당성의 지각은 고 지위 집단원에게는 내집단 편애를 증가시키지만 저 지위 집단원에서는 내집단 편애를 감소시켰다. 구체적으로 저 지위 집단은 지위 정당성이 낮을 때는 내집단 편애를 보였으나 지위 정당성이 높을 때는 외집단 편애를 보였다. Jost와 Burgess(2000)는 고 지위 집단원에 비해 저 지위 집단원에서 내집단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가 더 크게 나타나며 지위의 정당성 지각이 저 지위 집단에게는 양가성의 증가와 연관되나 고 지위 집단에서는 양가성의 감소와 연관됨을 보고하였다.

Major 등(2002)은 차별에 대한 귀인이 지위정당성 지각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데, 한편 이러한 지위 정당성 지각은 개인의 '정당한 세상'신념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여러 상황적, 분배절차적 특성(예를 들어, 평가자의 편견의 정도나 내력, 절차에 대한 통제 지각이나 환상 등)에 의해 영향받는다라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자들은 한 사회 내의 지위의 위계가 개인적인 지위 이동이 허용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신념 즉, 지위 체계가 침투가능하다는 신념을 주 근간으로 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고/저 지위의 집단원이 외집단원(저/고 지위)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상황의 원인을 차별로 지각하게 되는 정도를 조절한다고 보았다.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클수록 자신의 지위가 정당하다고 믿게 되고 그런 믿음은 고 지위 집단원에게는 자신의 가치와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반면, 저 지위 집단원에게는 자신의 가치없음과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게 만듦으로써 거부에 대한 차별 귀인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내 지배적인 인종집단인 유럽계 미국인과 소수 인종집단인 라틴계/아프리카계/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남/여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저 지위 집단원(라틴계/아프리카계/아시아계 미국인 또는 여성)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클수록 고 지위 집단원(유럽계 미국인 또는 남성)으로부터의 거부를 차별로 덜 지각하였고 고 지위 집단원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클수록 저 지위 집단원으로부터 거부 당했을 때 그 거부를 차별(즉 역차별)로 더 지각하였다.

안미영, 김혜숙과 안상수(2004)는 조사 방법을 통해 보

다 자연스러운 일상의 사회현상으로서 집단 지위, 지위정당성 및 지위안정성의 집단 구조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차별 경험과 지역차별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성차별 경험에 있어 지위가 낮을수록, 지위정당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지위안정성이 높을수록 높은 차별을 지각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지위정당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차별을 더욱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지역 차별 경험에 있어서는 성차별 경험과 비슷하게 지위고저, 지위정당성 및 지위안정성의 효과 및 정당성과 지위고저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 상호작용 효과는 지역지위가 낮을 경우에 높은 경우와 비교하여 지위정당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차별경험이 더 많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차별 경험에 대해서는 또한 지위고저와 지위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도 얻어졌다. 즉, 낮은 지역 지위의 사람들은 지위안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더욱 큰 차별 경험을 하였고, 이와 반대로 고지위 지역 집단의 경우에는 지위안정성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을 덜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안정성과 지위의 상호작용 효과는 소수 집단에 있어 지위안정성이 낮게 지각될수록, 그리고 다수 집단은 지위 안정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사회정체성과 내집단편애를 나타낸다는 사회정체 이론의 예언과 연구 결과(Turner & Brown, 1978)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보다는 체제정당화 이론과 더 부합되는 결과이다. 즉, 체제정당화 이론은 소수 집단은 지위가 안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일수록 기존의 지위가 더욱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해 차별을 더욱 크게 지각할 것이고 반면 다수 집단은 지위가 안정적일수록 더욱 정당한 것으로 지각하여 차별 지각과 경험을 덜 지각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할 것이다.

한편, Jost, Burgess와 Mosso (2001)는 체제정당화 이론을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시도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아 정당화(ego justification)의 동기와 집단적 차원에서의 집단 정당화(group justification)의 동기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체제 정당화(system justification)의 동기들 간의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념이나 정의 또는 집단간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얻어진 증거들을 통합하여 Jost 등(2001)은 고 지위 집단원에게는 자아 정당화, 집단 정당화, 체제정당화의 동기들이 일관되며 양립되는 반면에 저 지위의 집단원에게는 이들 동기들이 중

종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저 지위 집단의 지위가 부당한 것으로 여겨질 때, 사회정체성이 높아져서 내집단 편애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Ellemers 등 1993)에 대해 지위의 부당성은 체제를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하며 이것은 갈등관계에 있는 집단 정당화의 동기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내집단편애와 같은 반응이 나오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이와 반대로 체제 정당화가 증가되면 집단 정당화는 감소된다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저 지위 집단의 지위가 합법적일 때는 내집단 편애는 줄어들고 오히려 외집단 편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불이익 집단원이 받는 부적인 성과를 차별이나 편견에 귀인시킬 때 오히려 자존감이 보호된다는 연구결과들(예; Crocker & Major, 1989)은 자아 정당화의 요구와 체제 정당화의 요구 간의 갈등으로 설명된다. 저 지위 집단원에게서 자존감과 같이 자아를 정당화시키는 변인들은 차별의 부인과 같이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변인들과 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불이익의 집단원이 자신에게 오는 부적 성과를 체제의 불합리성을 시사하는 차별이나 편견에 귀인시킬 수 있을 때 자존감의 상실을 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 저 지위 구성원들은 기존의 체제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불리한 지위를 정당화시키는 방향의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여성들의 “저하된 자격효과(depressed entitlement effect)”를 제시한 연구들(Jost, 1997; Major, 1994; Major, McFarlin, & Gagnon, 1984)은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양과 질의 일을 했으면서도 남성들이 스스로 받을만하다고 여기는 임금수준보다 더 낮게 스스로의 임금을 책정함을 보고했다. 말하자면 저지위 집단 구성원들이 흔히 현재 상태(status quo)를 수용하며 적응하고자 하는데(즉, 체제정당화의 동기에 따르는 것), 이는 결국 부정적 자기평가와 자기가치로 귀결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 지위 집단원은 자아 정당화와 집단 정당화의 요구간의 갈등도 경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저 지위 집단원의 사회정체가 낮으면 그들은 자신을 내집단원으로 보다는 개인으로 더 보기 쉬우며, 집단의 전형적 인물로 보다는 특이한 개인으로 자신을 분류하며, 집단의 이질성이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반응을 보인다(Ellemers, 2001; Wright, 2001). Steele(1997)은 학문적

인 성공을 추구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내집단원들과 비 동일시(dis-identify)하고 보다 성공적인 외집단원과 동일시하게 된다고 제안한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대학에서의 성공을 가장 잘 예견하는 예견 요인은 백인 친구의 수였다. 이런 결과들은 저 지위 집단 구성원에게서 낮은 집단 정당화의 동기는 자아 정당화를 위한 태도나 행동을 증가시키며, 반대로 높은 자아 정당화의 동기는 낮은 집단 정당화로 이들을 보여 준다.

Jost 등(2001)이 제안한 체제정당화 이론은 이와 같이 기존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Jost 등이 제안한 이 이론은 과연 어떠한 변인들이 체제정당화 동기, 집단정당화 동기 및 자아정당화 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규명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이 동기들을 차별 경험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보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모호하다. Jost 등(2001)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기존의 체제정당화 이론과 사회정체 이론이 통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사회정체 이론이 소수 집단이 어떠한 상황에서 체제정당화보다는 집단정당화를 추구하게 될 지에 대한 규정을 도울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한 사회의 불이익 집단에 있어 체제정당화가 감소되면 집단 정당화가 증가되며, 이와 반대로 체제 정당화의 증가는 집단 정당화의 감소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단정당화의 증가는 체제정당화를 약화시키며 반대로 집단정당화의 감소는 체제정당화를 증가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불이익 집단 성원 중 자신의 집단에 높게 동일시하는 사람은 내집단 편애를 보이고, 한편 자신의 집단에 약하게만 동일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단의 열등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외집단을 편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정체 이론에서 내집단 편애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집단 지위의 정당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지각이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의 집단 정당화와 체제 정당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각하는 여러 소수 집단들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 지각 및 차별경험의 실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고, 또한 성 차별과 학벌 차별 지각

에 (지각된) 사회구조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학벌, 외국인노동자, 지역, 성, 비정규직 노동자, 조선족 노인, 가난한 사람, 동성애자, 이혼한 사람, 미혼모, 나이 어린 사람, 탈북자 및 외모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 및 차별 경험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하는 지를 전국 조사를 통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위에서 기술한 선행 이론들-특히 사회정체 이론과 체제정당화 이론-과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혹은 귀인)에 지각된 집단의 구조적 특성들과 집단정체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이 두 이론을 비교하기 보다는 Jost 등(2001)이 제안한대로 이 두 이론을 통합하여 지각된 사회구조 요인들과 집단정체성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차별의 근원 중 특히 심각하게 지각되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는 두 가지 차별 유형-성차별과 학벌차별-을 중심으로 사회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성차별은 현재 정부나 학계 그리고 사회단체들의 여러 노력으로 예전에 비해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 지표들이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UN 여성권한 척도 지수(2005)는 59위(80국 중)에 지나지 않고 기업체 부장급 이상의 여성 비율은 6.5%에 지나지 않으며 1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은 1-2%에 지나지 않는다(여성백서, 2004). 또한 최근 들어, 소위 명문대와 비명문대의 대학의 양극화 문제나 서울대 폐지 논의 등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사회의 학벌에 의한 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과 학벌 차별에 대한 집단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집단정체성의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집단의 구조적 특성은 지각된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집단 지위정당성과 지위안정성 특성에 대한 지각이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이 지각하는 우리 사회 차별의 심각성과 자신의 집단의 지위 혹은 사회로부터의 대우에 대한 차별(혹은 역차별) 지각(혹은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아울러 소수 집단 혹은 다수 집단의 집단정체성이 차별의 심각성 지각과 차별 경

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와 가장 근접한 선행 연구로 우리나라 사람들(남녀 대학생 및 일반인 630명)의 성차별 경험이 성별 집단 지위의 정당성과 안정성 지각에 의해 어떻게 영향 받는지를 검토한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200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차별경험을 더 많이 지각하였으며, 또한 여성은 성별 지위가 정당하지 않을 때 차별 경험을 더 많이 했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성지위 안정성이 높을 때 차별 경험을 더 크게 하였다. 본 연구는 이 선행 연구를 복제하고 확장시켜 검토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이 대다수였던 선행 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보다 더 광범위한 전국 표집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별 지각의 일반적 실태와 아울러 어떠한 기제에 의해 차별 지각을 하게 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속 측정인 차별 지각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우리 사회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 자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받은 정도(즉, 상대적 박탈) 및 차별경험 유무의 세 가지 차별 지각에 대해 각각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집단 지위 정당성과 안정성 변수 이외에 집단정체성의 변수를 포함시켜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지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학별 차별에 영향을 주는 기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이러한 다른 유형의 차별에 대해서도 동일한 차별 지각 기제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예상되는 결과는 우선, 소수 집단은 다수 집단보다 차별 경험(귀인)이 높을 것인데, 특히 자신의 집단의 낮은 지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각될 때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각할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낮은 지위를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때문으로 지각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집단의 낮은 지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지각될 때는 체제정당화의 동기가 낮아지고 집단정당화나 자아정당화의 동기는 높아져 자신의 집단의 낮은 지위를 차별로 귀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 집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당성의 효과가 약화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지각된 지위 안정성의 영향은 소수 집단의 경우, 집단의 낮은 지위가 지속되고 미래에도 변화될 가능성이 적으면 그만큼 더 부당하게 지각될 수 있으므로(즉, 체제정당

화의 동기가 낮아짐) 더욱 큰 차별 경험과 귀인을 하며 사회의 차별의 심각성을 높게 지각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수 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와 반대로 집단의 지위가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할 때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의 심각성을 낮게 지각하며 자신이 더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각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집단정체성의 효과는 다수나 소수 집단 모두에 있어 집단 정당성 동기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정체성을 크게 사적 집단자아존중과 공적 자아존중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사적 집단자아존중은 집단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소수 집단의 경우 사적 집단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체제정당화 동기가 낮아지고 집단정당화 동기가 높아져 차별 지각 및 경험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또한 집단 지위의 정당성이 낮을수록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즉, 지위정당성 \times 사적집단자아존중).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을 높게 보는 지에 근원된 존중감인 공적 집단자아존중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즉, 공적 집단자아존중이 낮을수록 소수 집단은 더욱 차별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집단 지위의 정당성이 낮을수록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즉, 지위정당성 \times 공적자아존중). 한편, 다수 집단의 경우에는 사적 집단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체제정당화와 집단정당화 동기가 높아져서 사회의 차별의 심각성을 덜 지각할 것이고 이러한 경향은 지위 정당성이 높게 지각될 때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집단의 공적 집단자아존중은 높을수록 차별 지각과 경험을 덜 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1) 가설 1 : 소수 집단은 다수 집단보다 차별 경험(귀인)이 높을 것인데, 특히 자신의 집단의 낮은 지위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각될 때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각할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낮은 지위를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때문으로 지각할 것이다.
- 2) 가설 2 : 지각된 지위 안정성의 영향은 소수 집단의 경우, 집단의 낮은 지위가 지속되고 미래에도 변화될 가능성이 적으면 그만큼 더 부당하게 지각될 수 있으므로(즉, 체제정당화의 동기가 낮아짐) 더욱 큰 차별 경험과 귀인을 하며 사회의 차별의 심각성을 높게 지각할 것이다.

반면, 다수 집단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집단의 지위가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할 때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의 심각성을 낮게 지각하며 자신이 더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각할 것이다.

3) 가설 3 : 소수 집단의 경우 사적 집단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차별의 심각성 지각 및 경험이 더 커질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집단 지위의 정당성이 낮을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집단의 경우에는 사적 집단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사회의 차별의 심각성을 낮게 지각할 것인데 이러한 경향성은 지위 정당성이 높을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4) 가설 4 : 소수 집단의 경우 공적 집단자아존중이 낮을수록 차별의 심각성 지각 및 경험이 더 커질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집단 지위의 정당성이 낮을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집단의 경우에는 공적 집단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을 덜할 것이다.

방 법

조사 방법

차별에 대한 조사의 표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표집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이었다. 전국(제주도 제외)을 단위로 성, 연령, 지역 비율에 따른 비례 할당표집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모집단의 성, 연령, 지역 비율은 2003년 12월 31일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갖고 개별 면접 조사로 이뤄졌다. 조사는 2004년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1개월 간 진행되었다.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2\%$ 이다.

조사 응답자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 중 남녀의 비율은 각각 49.4%와 50.6%이며, 연령 분포는 20대가 23.2%, 30대가 25.2%, 40대가 22.4%, 그리고 50세 이상 응답자가 29.2%이다. 학력분포는 중졸이하 학력자가 18.4%이고 고졸학력자와 전문대이상 학력자가 똑같이 40.8%이다.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판매종사자가 2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무종사자가 12.7%로 많으며, 서비스종사자 7.8%, 기술공 및 준전문가 4.6%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22.2%, 경기인천/강원권이 28.6%, 대전/충청권이 10.2%, 광주/전라권이 11.2%, 대구/경북권이 11.1% 그리고 부산/울산/경남권이 16.7%이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48.6%가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40.7%는 중소도시에서, 10.6%는 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 문항

본 연구의 조사 문항은 우리 사회 차별에 대한 포괄적 내용들(차별지각 및 경험, 편견의 내용, 각 대상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문항들 중 차별 지각과 경험에 관련된 문항들만을 포함시켰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15 대상 집단(장애인, 학벌, 외국인노동자, 지역, 성, 비정규직 노동자, 조선족 노인, 가난한 사람, 동성애자, 이혼한 사람, 미혼모, 나이 어린 사람, 탈북자 및 외모 차별)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응답은 5점 척도(1=전혀 심각하지 않다, 5=매우 심각하다)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차별의 예언 변인들로 성별과 학력별 집단 지위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각 두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집단 지위 정당성을 묻는 문항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는 공정하고 정당하다”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집단 간의 지위가 차이 나는 것은 능력에 따른 정당한 결과이다”의 두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지위 안정성을 묻는 문항들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다”와 “현재의 남성과 여성의 세력관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의 두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학력별 지위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묻는 문항들은 성별 지위에 대한 지각의 경우와 달리 학벌에 있어서의 다수 집단(즉, 명문대 출신 외 지위 정당성과 안정성을 묻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 출신이 차지하는 지위는 공정하고 정당하다” 등이었다. 이들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5=매우)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집단 지위 정당성과 안정성 외에 또 다른 예언 변인으로 집단정체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네 문항으로 측정하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범 주		남성	여성	계
연령	20대	239(12.0)	226(11.3)	465(23.3)
	30대	257(12.9)	247(12.3)	504(25.2)
	40대	229(11.4)	219(11.0)	448(22.4)
	50대	128(6.4)	128(6.4)	256(12.8)
	60세 이상	135(6.7)	192(9.6)	327(16.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0(3.5)	116(5.8)	186(9.3)
	100-200만원 미만	264(13.3)	213(10.7)	477(24.0)
	200-300만원 미만	310(15.6)	332(16.7)	642(32.3)
	300-400만원 미만	192(9.7)	201(10.1)	393(19.8)
	400만원 이상	147(7.4)	141(7.1)	288(14.5)
학력	중졸이하	128(6.4)	240(12.0)	368(18.4)
	고졸	358(17.9)	457(22.9)	815(40.8)
	대재이상	502(25.1)	315(15.7)	817(40.8)
직업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0(1.5)	2(0.2)	22(1.7)
	전문가	32(2.4)	27(2.0)	59(4.4)
	기술공 및 준전문가	58(4.3)	34(2.5)	92(6.8)
	사무 종사자	154(11.5)	100(7.5)	254(19.0)
	서비스 종사자	73(5.5)	82(6.1)	155(11.6)
	판매종사자	261(19.5)	181(13.6)	442(33.1)
	농/임/어업/숙련종사자	20(1.5)	14(1.0)	34(2.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14(8.5)	22(1.7)	136(10.2)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9(2.9)	2(0.2)	41(3.1)
	단순노무 종사자	64(4.8)	38(2.8)	102(7.6)
권역	서울	219(10.9)	225(11.2)	444(22.2)
	경기/인천/강원	285(14.3)	287(14.3)	572(28.6)
	대전/충청	101(5.0)	103(5.2)	204(10.2)
	광주/전라	109(5.4)	114(5.7)	223(11.1)
	대구/경북	110(5.5)	112(5.6)	222(11.1)
	부산/울산/경남	164(8.2)	171(8.6)	335(16.8)
거주지규모	대도시	479(24.0)	493(24.6)	972(48.6)
	중소도시	402(20.1)	413(20.6)	815(40.7)
	군 지역	107(5.3)	106(5.3)	213(10.6)

였다. 이는 여성(즉, 소수 집단)과 명문대 출신들(즉, 다수 집단)만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는가를 측정하였다. 이들 네 문항들은 Luhtanen과 Crocker(1991)의 집단 자아존중 척도에서 발췌한 문항들로서, 자신이 속한 성별 혹은 학벌 집단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는가를 측정하는 두 문항(즉, 사적 집단자아존중)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을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가를 평가하는 두 문항(즉, 공적 집단자아존중)으로 이루어 졌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매우 반대, 5=매우 찬성)를 사용하여 평가하도

록 하였다.

종속 측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 졌다 : (1)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 혹은 학벌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 평가(즉, 객관적 차별 평가) (2) 자신이 다른 성(즉, 여성 혹은 남성)에 비해, 혹은 다른 학벌 배경을 가진 사람(즉, 높은 학벌 배경)에 비해 얼마나 긍정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는 상대적 박탈감 평가 (3)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한 차별 유무(이 문항은 여성들만 응답함) 혹은 학벌로 인한 차별 경험 유무. 전자의 두 문항 유형은 각각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 측정 유형의 응답 형식은 ‘예/아니오’의 응답이었다

결 과

개요

결과 분석은 우선 15 대상 집단에 대한 우리 사회 차별의 심각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으로 차별 지각의 전체 실태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 차별 경험(혹은 귀인)과 차별 지각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는가에 대해 성별과 학벌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차별 경험 평가는 성별과 학벌 별 차별 각각 두 가지 종속 측정(즉, 우리 사회 차별의 심각성 지각, 상대적 박탈 경험)에 대해 각각 연구 가설에 포함되어 있는 변인만을 포함하여 일반선형 모형 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즉, 성(혹은 학벌), 지위 정당성, 지위 안정성, 성과 정당성의 상호작용, 성과 안정성의 상호작용을 포함시켜 일반선형모형 분석을 하였다. 일반선형모형의 분석방법은 범주변인과 연속변인이 혼합된 경우의 회귀분석 방법으로, 이 경우 성 혹은 학벌은 고정변인이고 다른 변인(정당성, 안정성)들은 연속변인이다. 고정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변량분석의 효과와 동일하며 연속 변인에 대한 결과는 회귀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그리고 고정 변인과 연속 변인간의 상호작용은 고정변인에 따라 연속 변인의 회귀계수가 상이한지의 여부를 알게 해 준다.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경우에는 각 유의미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만을 포함시킨 일반선형 모형을 가정하여 성별(혹은 학벌별)에 따른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성차별 경험 유무의 종속 측정에는 여성들만 응답하여서 회귀분석만을 하였고, 학벌로 인한 차별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역시 일반선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성별 집단정체성에 대한 문항에는 여성들만 응답하였으므로, 각각의 세 종속 측정(즉, 성차별 경험 유무, 상대적 박탈 경험 및 성차별 심각성 지각)에 대한 여성들의 응답만을 포함하여 집단정체(사적, 공적), 지위 정당성, 지위 안정성, 정당성×집단정체, 안정성×집단정체의 효과를 포함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학벌관련 집단정체성에 대해서는 학벌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응답하도록 하였으므로 세 종속 측정(학벌로 인한 차별 경험 유무, 학벌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및 상대적 박

탈)에 대한 명문대출신 사람들만의 응답을 포함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 사회의 차별의 심각성 지각

표 2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각하는 대상 집단 별 차별의 심각성 평가 평균이 나타나 있다.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제일 심각하다고 지각하였고, 그 다음 학력·학벌 차별,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미혼모 순으로 차별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했다. 가장 덜 심각한 차별로는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이었고 그 다음으로 탈북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 순으로 차별이 덜 심각하다고 지각하였다.

표 2. 대상 집단 별 차별의 심각성

차별 대상 집단	평균(M)	SD
장애인에 대한 차별	4.08	.87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4.07	.8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4.04	.95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3.79	1.16
미혼모에 대한 차별	3.78	1.0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3.77	.93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	3.74	1.05
외모에 대한 차별	3.64	.98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한 차별	3.52	1.05
이혼자에 대한 차별	3.52	1.00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	3.46	.94
나이든 사람에 대한 차별	3.44	.99
여성에 대한 차별	3.23	1.08
탈북자에 대한 차별	3.20	1.00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	2.81	1.05

성별 차별 지각 및 경험

인구학적 변인 별 성차별 지각

먼저 남녀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 성차별을 어떻게 지각하고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표 3에 각각의 평균이 남녀 별로 나타나 있다. 표 3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 사회의 성차별의 심각성과 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여성들만 응답하도록 한 여성차별 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24.1%가 성차별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음, 표 4에 여러 인구학적 변인 별로 본 성차별 심각

표 3. 성별에 따른 차별지각 평균

	남성	여성	t 검증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	3.03(.95) (N=988)	3.44(.94) (N=1012)	-8.45(df=1985)**
상대적 박탈	2.75(.76) (N=972)	3.17(.87) (N=995)	-11.25(df=1965)**
차별경험의 유무	해당 없음	유(N=248) 무(N=769)	.
정당성	2.92(.74) (N=988)	2.69(.82) (N=1012)	6.72(df=1998)**
안정성	2.83(.81) (N=988)	2.79(.89) (N=1012)	.93(df=1988)

성, 성별 지위의 정당성과 안정성 지각에 대한 평균과 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에서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성차별 심각성은 여성에게서($F(1, 1998)=71.40, p<.01$), 학력이 높을수록($F(2, 1997)=14.92, p<.01$), 젊을수록($F(3, 1996)=8.61, p<.01$), 소득이 높을수록($F(5, 1994)=4.22, p<.01$),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F(2,$

$1997)=6.48, p<.01$) 그리고 수도권 지역 응답자($F(3, 1932)=24.09, p<.01$)에게서 높게 지각되었다. 성별 지위의 정당성은 여성에게서($F(1, 1998)=45.14, p<.01$), 학력이 높을수록($F(2, 1997)=26.69, p<.01$), 젊을수록($F(3, 1996)=17.16, p<.01$), 소득이 높을수록($F(4, 1981)=8.78, p<.01$),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F(2, 1997)=3.37, p<.05$) 그리고 수도권 지역 응답자($F(3, 1932)=20.75, p<.01$)에게서 낮게 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지위 안정성 지각에 있어서도 대체로 정당성 지각과 그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F(2, 1997)=17.46, p<.01$), 연령이 낮을수록($F(3, 1996)=7.84, p<.01$),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F(4, 1981)=2.66, p<.05$) 중소도시 거주자나 대도시 거주자($F(2, 1997)=5.12, p<.01$) 및 수도권 거주자들($F(3, 1932)=18.83, p<.01$)이 유의미하게 낮은 안정성을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대로, 현재 우리 사회의 성차별 심각성과 성별 지위의 부당성은 여성들, 젊은 사람들, 높은 학력의 사람들, 높은 소득의 사람들 및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자 및 수도권 사람들에게서

표 4. 인구학적 변인 별 성 지위 및 학별 지위 정당성과 안정성 평가 평균 표준편차

	여성차별 심각성	성지위 정당성	성지위 안정성	학별차별 심각성	학별지위 정당성	학별지위 안정성
성별(N)						
남(988)	3.03(1.16)**	2.92(.74)**	2.83(.81)	4.11(.82)*	2.36(.87)**	2.94(.72)
여(1012)	3.43(.96)	2.69(.82)	2.79(.89)	4.02(.84)	2.45(.86)	2.96(.68)
전체	3.23(1.08)	2.80(.79)	2.81(.86)	4.07(.83)	2.40(.87)	2.95(.70)
학력(N)						
중졸이하(368)	3.00(1.09) _a **	3.03(.75) _a **	3.01(.83) _a **	3.87(.85) _a **	2.77(.83) _a **	3.08(.61) _a **
고졸(815)	3.21(1.12) _b	2.83(.81) _b	2.83(.89) _b	4.11(.82) _b	2.36(.86) _b	2.90(.70) _b
대재이상(817)	3.36(1.01) _c	2.68(.77) _c	2.70(.82) _c	4.12(.82) _b	2.28(.84) _b	2.93(.72) _b
전체	3.23(1.08)	2.80(.79)	2.81(.86)	4.07(.83)	2.40(.87)	2.95(.70)
연령(N)						
20대(465)	3.32(1.07) _a **	2.68(.78) _a **	2.75(.84) _a **	4.11(.84) _a **	2.31(.82) _a **	2.92(.70) _{ab} **
30대(504)	3.34(1.09) _a	2.73(.82) _a	2.75(.86) _a	4.17(.75) _a	2.26(.84) _a	2.90(.77) _a
40대(448)	3.26(1.03) _a	2.76(.79) _a	2.76(.86) _a	4.10(.84) _a	2.35(.85) _a	2.94(.68) _{ab}
50대 이상(583)	3.05(1.10) _b	2.99(.75) _b	2.95(.84) _b	3.92(.87) _b	2.64(.88) _b	3.03(.64) _b
전체	3.23(1.08)	2.80(.79)	2.81(.86)	4.07(.83)	2.40(.87)	2.95(.70)
가구소득(N)						
100만원 미만(186)	3.11(1.19) _a **	2.94(.80) _a **	2.92(.89)	3.90(.89) _a **	2.58(.90)*	2.96(.69)
100~200만원(477)	3.08(1.23) _{ab}	2.91(.78) _a	2.84(.89)	4.02(.84) _{ab}	2.39(.86)	2.99(.74)
200~300만원(642)	3.28(1.00) _{ab}	2.82(.80) _{ab}	2.85(.81)	4.07(.83) _{ab}	2.41(.88)	2.95(.69)
300~400만원(393)	3.27(1.01) _{ab}	2.67(.76) _c	2.75(.86)	4.11(.82) _{ab}	2.37(.84)	2.93(.65)
400만원 이상(288)	3.40(.98) _b	2.67(.79) _{bc}	2.71(.84)	4.20(.77) _b	2.34(.85)	2.92(.73)
전체	3.23(1.08)	2.80(.79)	2.81(.86)	4.07(.83)	2.40(.87)	2.95(.70)

표 4. 계속

	여성차별 심각성	성지위 정당성	성지위 안정성	학벌차별 심각성	학벌지위 정당성	학벌지위 안정성
거주지 규모 (N)						
대도시(972)	3.28(1.12) _a **	2.78(.77) _a *	2.82(.83) _{ab} **	4.07(.84) _{ab} *	2.46(.85) _a **	2.98(.68)
중소도시(815)	3.24(1.03) _a	2.80(.79) _{ab}	2.76(.86) _a	4.10(.82) _a	2.31(.83) _b	2.91(.70)
군지역(213)	2.99(1.06) _b	2.93(.86) _b	2.97(.95) _b	3.94(.81) _b	2.49(1.00) _a	2.97(.76)
전체	3.23(1.08)	2.80(.79)	2.81(.86)	4.07(.83)	2.40(.87)	2.95(.70)
조사대상지역(N)						
서울경기인천(952)	3.41(.95) _a **	2.68(.78) _a **	2.70(.78) _a **	4.14(.82) _a **	2.30(.82) _a **	2.91(.69) _a **
대전충남충북(204)	2.78(1.22) _c	3.10(.85) _c	3.18(1.02) _c	3.96(.82) _b	2.60(1.00) _b	2.89(.81) _{ab}
광주전주전남전북(223)	3.03(1.26) _{bc}	2.93(.74) _{bc}	2.85(.90) _{ab}	4.03(.86) _{ab}	2.26(.85) _a	2.93(.70) _{ab}
부산대구경북경남(557)	3.17(1.08) _b	2.85(.76) _b	2.83(.84) _b	3.97(.85) _b	2.57(.87) _b	3.03(.66) _b
전체	3.23(1.08)	2.80(.79)	2.81(.85)	4.07(.84)	2.40(.87)	2.95(.70)

* $p < .05$, ** $p < .01$

주. 아래 첨자는 중복되지 않는 알파벳이 있을 경우 유의미한($p < .05$) 차이임을 나타냄

높게 지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 차별의 심각성 지각에 지각된 지위 구조 요인이 미치는 영향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 차별의 심각성 평가에 대해 성별, 지위정당성, 지위안정성 및 성과 정당성, 성과 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시킨 일반선형모형 분석(성은 고정변인, 정당성과 안정성을 연속변인으로 함)을 하였다. 그 결과, 성의 주효과($F(1, 1981)=3.69, p < .06$, 정당성의 주효과($F(1, 1981)=72.69, p < .01$ 및 안정성 주효과($F(1, 1981)=4.08, p < .05$)가 유의미하였으며, 성과 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성에 근접하였다($F(1, 1981)=3.29, p < .07$). 성과 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은 분석을 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정당성이 여성에 대한 차별지각에 미치는 효과는 여성의 경우에 역방향으로($B = -.105$) 유의미성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남성에 있어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에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의 예측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5와 그림 1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우선,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여성차별이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였다(남성 $M = 3.17$, 여성 $M = 3.44$). 또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지위 정당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여성에 대한 차별이 높다고 지각하였는데($B = -.19$), 이

표 5. 성별, 정당성 및 안정성의 일반선형모형에 따른 여성차별심각성 지각의 모수 추정치

모 수	B	표준오차	t	p
[성별=0]	.342	.178	1.921	.055
[성별=1]	0	.	.	.
성정당	-.194	.043	-4.540	.000
성안정성	-.094	.039	-2.415	.016
[성별=0] * 성정당성	-.105	.058	-1.813	.070
[성별=1] * 성정당성	0	.	.	.
[성별=0] * 성안정성	.081	.053	1.535	.125
[성별=1] * 성안정성	0	.	.	.

1. 성별 : 여성=0, 남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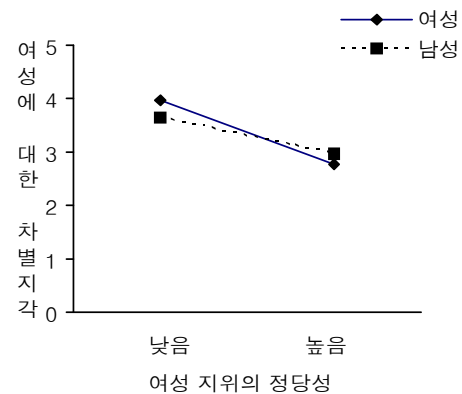


그림 1. 성별에 따른 여성지위정당성과 여성차별심각성 지각의 예상되는 관계

러한 경향은 여성에게서 뚜렷이 나타났다($B=-.11$). 이는 가설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성지위의 안정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 높다고 지각하였다($B=-.09$). 이는 가설2와는 다른 결과이다.

상대적 박탈 경험에 지각된 지위 구조 요인이 미치는 영향

다른 성에 비교한 자신의 상대적 박탈감 평가에 대해 성, 지위정당성, 지위안정성, 성과 지위정당성 및 성과 지위안정성을 포함시킨 일반선형 모형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성별 주효과($F(1, 1961)= 50.62, p<.01$)와 성과 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1961)=24.51, p<.01$). 이 일반선형모형에 따른 모수추정치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이에서 보면, 여성에 있어서만 상대적 박탈감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고($B=1.11, p<.01$), 또한 여성에 있어서만 정당성 지각이 상대적 박탈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B=-.25, p<.01$). 그림 2에 성지위 정당성 지각이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에 대한 예측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컸다(남성 $M= 2.75$, 여성 $M=3.17$). 또한 여성은 성지위 정당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상대적 박탈감 경험이 더 컸는데, 남성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직접적 성차별 경험 지각인 상대적 박탈감을 여성들이 더욱 크게 느끼며, 또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낮은 지위가 부당하다고 느낄수록 더욱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가설 1 지지).

표 6. 성별, 정당성, 안정성의 일반선형모형에 따른 상대적 박탈의 모수 추정치

모 수	B	표준오차	t	p
intercept	2.646	.120	22.028	.000
[성별=0]	1.113	.156	7.115	.000
[성별=1]	0	.	.	.
정당성	-.004	.037	-.099	.921
안정성	.042	.034	1.232	.218
[성별=0]*정당성	-.250	.051	-4.951	.000
[성별=1]*정당성	0	.	.	.
[성별=0]*안정성	-.010	.046	-.206	.837
[성별=1]*안정성	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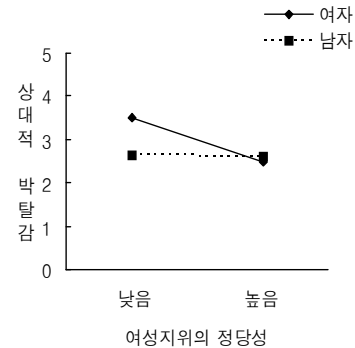


그림 2. 성별에 따른 정당성과 상대적 박탈감의 예상되는 관계

여성들의 성차별 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정체성, 정당성 및 안정성의 효과

여성응답자의 경우에만 응답한 성차별경험 유무에 대해서 여성들의 24.1%가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차별경험 유무 응답에 대해, 우선 지위 정당성, 지위안정성 및 집단정체성(사적 집단자아존중, 공적 집단자아존중)을 예언 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위정당성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beta=-.19$), 그 다음 사적 정체성이 유의미한 예언력을 나타내었고($\beta=.12$), 또한 공적 정체도 부적으로 유의미한 예언력을 나타내었다($\beta=-.07$). 안정성은 성차별 경험 유무를 별로 잘 예해 주지 못하였다. 표 7에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예상대로, 여성들에 있어 지위정당성이 낮게 지각될수록 차별경험이 커지고, 사적 집단자아존중이 클수록 차별경험이 크게 지각되었으며(가설3 일부 지지), 한편 공적 집단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은 낮았다. 그러나 안정성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정당성, 안정성과 사적 정체, 공적 정체성의 상호작용의 예측력을 검토하기 위해 표 7에 나타난 단계적 회귀분석에 부가적으로 위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8에 나타나 있는 대로, 정당성과 공적 정체성의 상호작용만이 유의미성에 근접하였다($\beta=.32$). 이 상호작용은 그림 3에 나타난 대로 그리고 예측한 대로, 여성들에 있어 지위 정당성이 낮게 지각된 경우 공적 정체성이 낮을수록 차별경험이 더 커지나 지위정당성이 높은 경우는 그 반대의 경향이 나타남을 의미한다(가설4 지지).

표 7. 여성차별 경험 유무에 대한 정당성, 안정성, 공적정체 및 사적정체의 영향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Model	B	표준오차	β	t	p	ΔR^2	ΔF	p
정당성	-.100	.016	-.192	-6.193	.000	.037	38.348	.000
사적정체	.072	.019	.118	3.795	.000	.014	14.405	.000
공적정체	-.043	.020	-.070	-2.169	.030	.004	4.706	.030

$R^2=.055$ adj $R^2=.052$ $R=.235$

표 8. 여성차별 경험 유무에 대한 정당성×공적정체, 정당성×사적정체, 안정성×공적정체, 안정성×사적정체의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Model	B	표준오차	β	t	p	ΔR^2	ΔF	p
정당성×공적정체	.037	.020	.319	1.857	.064	.003	3.449	.064

$R^2=.058$ adj $R^2=.055$ $R=.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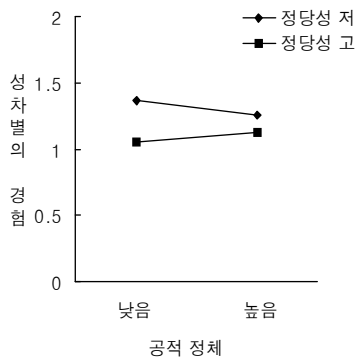


그림 3. 여성 차별경험 유무에 미치는 정당성과 공적 정체성의 예상되는 상호작용효과

여성들의 성차별 심각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정체성, 지위 정당성 및 안정성의 효과

여성 집단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성들만 응답하였으므로, 여성들에 있어 성차별 심각성 지각과 상대적 박탈감

지각이 집단자아존중(사적, 공적)에 의해서 그리고 이 변인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 받는 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여성들의 성차별의 심각성 지각에 미치는 정당성, 안정성 및 집단정체의 효과에 대해서 단계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성지위 정당성의 주효과와 공적정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그 외의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성지위 정당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공적정체가 낮을수록 우리 사회의 성차별이 더욱 심각하다고 평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여성들의 상대적 박탈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정체성, 지위 정당성 및 안정성의 효과

여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성정당성, 안정성 사적정체 및 공적정체의 주효과에 대한 단계회귀분석 결과, 표 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성지위 정당성과 공적 정

표 9. 여성차별의 심각성 평가에 대한 정당성, 안정성, 공적정체, 사적정체의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여성응답자)

Model	B	표준오차	β	t	p	ΔR^2	ΔF	p
정당성	-.307	.035	-.269	-8.846	.000	.073	78.255	.000
공적정체	-.158	.042	-.116	-3.752	.000	.013	14.076	.000

$R^2=.085$ adj $R^2=.084$ $R=.292$

표 10. 여성들의 상대적 박탈에 대한 정당성, 안정성, 공적정체, 사적정체의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Model	B	표준오차	β	t	p	ΔR^2	ΔF	p
정당성	-.238	.033	-.225	-7.251	.000	.051	52.572	.000
공적정체	-.129	.040	-.103	-3.249	.001	.010	10.555	.001

$R^2=.061$ adj $R^2=.059$ $R=.246$

표 11. 여성들의 상대적 박탈에 대한 정당성 공적정체, 정당성 사적정체, 안정성 공적정체, 안정성 사적정체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Model	B	표준오차	β	t	p	ΔR^2	ΔF	p
정당성×공적정체	.070	.041	.293	1.720	.086	.003	2.958	.086

$R^2=.063$ adj $R^2=.061$ $R=.252$

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은 성 지위 정당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성 집단을 무가치하게 본다고 지각할수록 더 큰 상대 박탈감을 지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 각 정체성과 정당성 그리고 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단계회귀 분석에 부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1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차별경험 유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지각된 정당성과 공적정체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유의미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beta=.29$). 이 상호작용 효과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상대박탈에 미치는 정당성과 공적정체의 예상되는 효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이에서 보면, 여성들에 있어

지각된 정당성이 낮은 경우 공적 정체성이 낮을수록 상대적 박탈을 더 크게 느꼈으나 이러한 경향성이 지각된 정당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가설 4 지지).

학벌차별 지각 및 경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벌차별 심각성, 학벌 지위 정당성과 안정성 지각

우선, 표 12에 학벌에 따른 차별 경험과 학벌 지위 정당성 지각과 안정성 지각의 평균이 나타나 있다. 표 12에 나타난 대로, 자신을 명문대 출신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77명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하였다. 명문대 출신과 비명문대 출신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학벌 차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평가하였으나($M=3.97$ 대 4.07), 이들의 평가 차이는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학벌로 인한 차별경험 유무에 있어 비명문대 출신이 명문대 출신보다 차별 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았고(20.6% 대 2.6%), 또한 학벌이 좋은 사람에 비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 높았다($M=2.95$ 대 3.20). 또한 학벌에 의한 지위 안정성은 명문대 출신이 비명문대 출신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다음, 앞의 표 4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학벌차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남성($F(1, 1998)=5.64, p<.05$), 40대 이하($F(3, 1996)=9.06, p<.01$), 소득이 높을수록($F(5, 1994)=3.37, p<.01$), 고졸이상의 사람($F(2, 1997)=13.40, p<.01$),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들($F(3, 1932)=6.30, p<.01$)에서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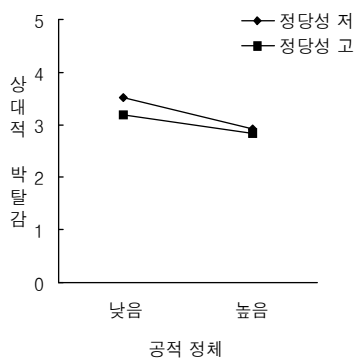


그림 4. 여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정당성과 공적 정체 의 예상되는 상호작용효과

표 12. 학력 및 학벌에 따른 차별 경험, 정당성과 안정성 평정의 평균(표준편차)

	비명문	명문	t
학벌 학력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	4.07(.83) (N=1923)	3.97(.81) (N=77)	1.02(df=1998)
상대적 박탈	3.20(.85) (N=1916)	2.95(.69) (N=77)	2.55(df=1991)*
학벌차별 경험 유	20.6% (N=1923)	2.6% (N=77)	3.89(df=1998)**
정당성	2.40(.87) (N=1916)	2.54(.83) (N=77)	-1.41(df=1998)
안정성	2.94(.70) (N=1923)	3.11(.63) (N=77)	-2.07(df=1998)*

*p<.05, **p<.01

욱 높게 지각하였다. 학벌 지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남성($F(1, 1998)=5.10, p<.05$), 학력이 높을수록($F(2, 1997)=44.73, p<.01$), 40대 이하($F(3, 1996)=23.05, p<.01$, 월 소득 100만원 이상($F(4, 1981), p<.05$), 중소도시 거주자($F(2, 1997)=8.56, p<.01$), 그리고 수도권 과 호남지역 거주자($F(3, 1932)=17.36, p<.01$)에 있어 그 정당성을 더욱 낮게 지각하였다. 학벌지위 안정성에 대한 지각도 정당성 지각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가구소득별이나 거주지 규모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정당성 지각과 달리 영남지역의 응답자들이 다른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학벌지위 안정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학벌 차별의 심각성을 다른 차별의 심각성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여성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경우와 달리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학벌 차별의 심각성을 더 높이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벌에 따른 지위의 정당성 지각에 있어서 학력이 높고 40대 이하의 연령, 그리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학벌 지위가 부당하다고 지각하였는데, 이는 성별 지위의 정당성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가장 낮게 정당성을 지각하였던 성별 지위 정당성 지각과 달리 학벌지위 정당성 지각에 있어서는 중소도시 거주자가 가장 정당성이 낮다고 지각하여, 중소도시 거주자가 학벌에 의한 부당성의 문제를 가장 심각히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이 보다 체제 수용적인 군지역 거주자들보다 학벌로 인한 사회진출의 좌절 경험을 보다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데에 기인될 수 있다.

다음, 학벌차별 경험이 지위정당성, 안정성 및 집단정체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성별의 경우와 비슷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 지각에 대한 지각된 지위 구조 요인의 영향

명문대 출신 여부, 학벌로 인한 지위의 정당성과 안정성, 그리고 학벌과 정당성, 학벌과 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는 일반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벌지위 정당성 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 1994)=4.40, p<.05$). 이 결과는 사람들은 학벌지위가 정당하다고 지각할수록 우리 사회 학벌 차별을 덜 지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B=-.06$).

자신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에 비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각된 지위 구조요인의 영향

학벌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일반선형모형 분석 결과는 아무런 주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학벌과 정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성에 근접하였다($F(1, 1987)=3.18, p<.08$). 이 상호작용의 모수추정치인 비명문대 학벌을 가진 사람의 경우 학벌지위의 정당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학벌차별로 인한 상대박탈감을 더 높게 경험했는데($B=-.22, p<.08$), 명문대 출신에 있어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5에 이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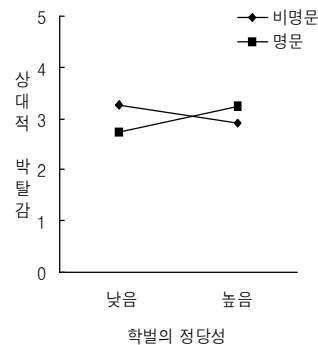


그림 5.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명문대 출신 여부와 학벌 지위 정당성의 상호작용의 예상 결과

의 예상되는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에서 보면, 예상대로 비명문대 출신의 경우 학별지위 정당성이 낮다고 지각할 수록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지각하였으나 명문대 출신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가설 1지지).

학별로 인한 차별경험 유무에 대한 지각된 지위 구 조요인의 영향

학별로 인한 차별경험 유무의 응답에 대한 학별, 정당성, 안정성 및 학별과 정당성, 학별과 안정성 상호작용을 포함한 일반선행모형 분석 결과 학별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t=3.89$, $p<.01$), 그 외에는 아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명문대 출신에 있어, 지위정당성 안정성 및 집단정체성이 차별 지각과 경험에 미치는 영향

학별 집단 자아존중에 대해서는 명문대 출신들만($N=77$) 응답하였다. 학별 집단 정체성, 정당성, 안정성 그리고 집단정체성과 정당성, 안정성의 상호작용이 차별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준 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우선, 학별 차별의 심각성 지각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무런 유의미한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3에 나타나 있는데, 이에서 보듯이 사적 집단정체가 유의미하게 상대 박탈에 영향을 미쳤고($\beta=-1.46$), 또한 지위안정성도 유의미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beta=-1.57$). 또한 안정성과 사적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명문대 출신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사적정체성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고(가설 3 일부 지지), 또한 학별 지위가 안정된다고 지각될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적게 느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사적 집단자아존중이 높을수록 명문대 출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낀다는 결과는 앞에서 기술한, 여성들의 성차별경험 유무에 사적 집단자아존중감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학력이나 학별로 인한 차별 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명문대 출신들 중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3. 학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성, 안정성 및 집단정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β)

	β	t
정당성	.58	.80
안정성	-1.57	-1.95 $p<.06$
공적정체	.24	.26
사적정체	-1.46	-2.38 *
정당 \times 공적	-.65	-.84
정당 \times 사적	.10	.11
안정 \times 공적	.08	.06
안정 \times 사적	2.25	2.25 *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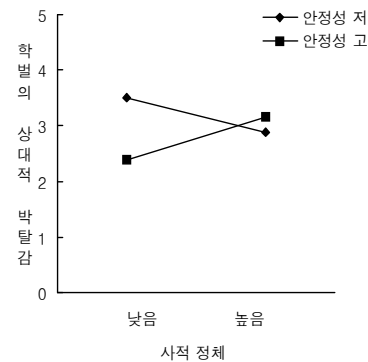


그림 6. 명문대 출신의 사적정체와 안정성에 따른 학별에 대한 상대적 박탈의 예상 되는 관계

논 의

본 연구의 전국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제일 심각하다고 지각하였고, 그 다음 학력·학별 차별,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미혼모 순으로 차별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했다. 나이 어린 사람, 탈북자 및 여성에 대한 차별은 덜 심각하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국제화, 다양화 및 민주화되어 감에 따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다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차별 문제는 더 이상 지역문제나 나이 문제나 여성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는 간과되어 오던 장애인, 학별 및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구 결과는 예상대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우리 사

회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지각하며 또한 성으로 인한 상대 박탈감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성별 지위에 대해서 예상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자에서 그리고 수도권 응답자에서 지위 정당성과 안정성이 낮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성차별 심각성이 더 크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우리 사회의 여성이나 비명문대 출신 등의 소수 집단에 있어서 다수 집단에 비교한 상대적 박탈감이 남성이나 명문대 출신 등의 다수 집단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비해 더 컸다. 특히 여성들($M=3.17$)이 남성들($M=2.75$)에 비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차이(0.52)는 학벌 차별로 인해 명문대 출신들($M=2.95$)에 비해 비명문대 출신들($M=3.20$)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차이(0.25)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사회 성차별의 심각성이 학벌차별의 심각성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다고 지각되었지만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심각성은 학벌 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상대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 지각에 있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위정당성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 그 심각성이 높다고 지각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 있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 지각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지위정당성이 낮을수록 더욱 높은 상대박탈감을 지각하였는데, 남성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각된 성별 지위 정당성의 반복적 연구 결과는 체제정당화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며 특히 소수 집단의 차별 지각과 경험이 지위의 사회적 정당성 판단과 평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만 응답한, 여성으로서의 차별 경험 유무에 있어서 예상대로 여성으로서의 사적 정체성(즉, 자부심, 가치 부여)이 높을수록 더욱 차별 경험을 하였고, 한편 공적 집단정체성이 낮을수록 차별 경험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위정당성이 낮을수록 차별 경험이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예상대로 공적 정체성이 낮아 자신의 집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낮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뚜렷하였다. 또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집단정체성의 효과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단지 사적 집

단자이론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대로 여성들은 지각된 지위정당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사적 정체성이 높을수록 더 많이 차별경험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여성들은 여성 집단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을 더 많이 보고하여 자신과 자신의 집단의 낮은 지위가 차별에 의한 것이라고 귀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공적 정체성이 낮을수록 즉 자신의 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더 큰 차별 경험을 보고하였는데, 아울러 공적정체성이 낮을수록 낮은 정당성 지각이 더 큰 차별 경험을 하도록 함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성을 낮게 평가하지만 이러한 낮은 지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지각할 때 더욱 차별 경험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지각된 지위안정성이 낮을수록 남녀 응답자에 상관없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 높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안정성의 결과는 그러나 보다 직접적 주관적 차별 경험에 대한 지각인 상대적 박탈감 경험이나 성차별 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명문대 출신들은 예상대로 자신의 집단의 지위가 안정되었다고 지각할수록 학벌로 인한 상대적 박탈을 덜 경험하였다. 이러한 성별 지위 안정성 분석 결과는 지각된 성별 지위의 안정성이 성차별 경험과 정적으로 연관됨을 얻은 안미영 등(2004)의 연구 결과와도 상반된다. 이 후자의 연구에서는 또한 지역 소수 집단에 있어서는 지역 지위가 안정될수록 더욱 차별 경험을 지각하였고 한편 지역 지위가 높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서 체제정당화 이론이 지지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성별 집단 지위의 정당성과 안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검토한 김금미, 한영석(2002) 그리고 김금미 등(2003)의 연구들에서는 사회정체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성에 있어서는 성별 지위 안정성이 높을수록 여성 사회정체성이 낮았고 한편 남성들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로 지위 안정성이 높을수록 남성 사회정체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안미영 등(2004)에서 얻은 결과 소수 지역 집단에 있어서는 지위가 안정된 것으로 지각할수록 더 많은 차별 경험을 보였다는와는 괴리가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 간의 표면적 괴리는 첫째, 본 연구에서 지각된 성지위 안정성이 성차별심

각성 지각에 미치는 부적 영향의 결과는 안미영 등(2004)이나 김금미, 한영석(2002)의 연구에서와 달리 응답자의 차별 경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각한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것이었다는 종속 측정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차이는 연구들의 종속 측정의 차이를 감안하여 통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소수 집단은 지위가 안정되었다고 지각하면 더 크게 차별로 지각하지만 한편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포기 상태로 되어 사회 정체성은 낮아질 수 있고, 반면 다수 집단은 지위가 안정될수록 차별 경험은 덜 하고 사회정체성은 높아질 수 있다. 다른 한편 본 연구에서 사람들이 성별 지위가 안정되었다고 지각할수록 우리 사회 성차별의 심각성을 낮게 지각하였다는 결과에 대한 설명의 단서를 지위 정당성 평가와 안정성 평가가 정적 상관($r=.39, p<.01$)을 보였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집단 지위가 정당할수록 안정되었다고 지각하고 반대로 지위가 정당하지 않을수록 불안정하다고 지각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성별 지위가 안정되었다고 지각할수록 그 정당성이 또한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따라서 성차별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집단 지위 안정성이 성차별 지각이나 경험 그리고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지위정당성의 효과만큼 일관되지 못하게 나타났고,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에 있어서 지위안정성이 차별경험과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차별지각과 사회정체성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소수 집단의 사람들은 집단 지위가 부당하면서 안정되었다고 지각할 때 부당하면서 불안정하다고 지각될 때보다 차별 지각은 더 높아지지만 개인적 이동에 대한 욕구와 행동이 더 많아지면서 사회정체성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성차별 문제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여성들이 자신의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가 그 정당성이 미약하다고 지각될수록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 또한 여성 집단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더욱 많은 것으로 지각했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에게 부여되는 낮은 지위가 개인의 능력 유무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소속된 성별 집단에 대한 사회의 부당한 편견에 의한 것이라고 지각할수록, 또한 여성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이 높을수록, 더욱 차별을 경험하고 여성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우리 사회의 성별 집단 지위가 덜 정당하다고 지각하였다. 이렇게 볼 때, 성별 집단 지위와 관련된 여성들의 불만이나 남녀 갈등의 해결은 성별 집단 지위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학벌 차별에 의한 경험에 있어서도 비명문대 출신들이 명문대 출신보다 상대적 박탈감과 학벌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성별 차별 경험의 경우만큼 뚜렷한 지위정당성이나 안정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학벌로 인한 상대박탈 경험에 있어 학벌이 낮은 경우 학벌로 인한 지위정당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더욱 학벌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학벌 차별은 학벌 지위의 정당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지각하였다. 학벌 차별 경험에 대한 지각된 집단 구조의 영향이 성차별 경험의 경우와 달리 그다지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서 명문대 출신이라고 응답한 피험자의 수가 너무 적어서(77명) 의미 있는 효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명문대 출신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예상대로 사회적 정체성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고, 또한 학벌 지위가 안정되었다고 지각할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적게 나타냈다. 특히 명문대 출신들이 사회적 집단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낀다는 결과는 앞에서 기술한, 여성들의 성차별 경험 유무에 사회적 집단자아존중감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즉, 여성들은 여성 집단에 대해 자부심과 가치를 높이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이 성차별 경험을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와는 반대로 명문대 출신들은 자신의 학벌 집단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있을수록 학벌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덜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 집단 구성원들은 자신의 집단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이 높을수록 그 집단의 현재의 낮은 지위(혹은 그 집단에 속한 자신의 낮은 지위를 사회의 편견으로 귀인 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집단에 부여된 낮은 지위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집단에 대한 존중감과 자아존중을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하고자 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에, 다수 집단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자부심이 클수록 자신과 자신의 집단의 현재의 높은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차별 경험과 지각을 덜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수와 다수 집단에 있어 사적 정체성의 효과가 차별 경험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고, 특히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 집단에 대한 정체성이 높을수록 더욱 차별 지각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Quinton과 Major(1997)의 연구에서 여성들의 집단정체가 부각될수록 차별 지각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서 사적 집단정체가 차별지각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반복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벌 차별 경험에 있어서도 성별 차별 경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학벌 지위의 정당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더욱 큰 상대적 박탈감을 지각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즉,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보다도 그 자신이 속한 학벌 집단이나 성별 집단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부당하게 결정된다고 지각되는 사회에서 여성이나 낮은 학벌의 사람들은 더욱 큰 차별 경험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집단 지위 정당성의 실질적 확립과 여성이나 낮은 학벌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감소가 필수적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차별의 심각성 지각(즉, 보다 객관적 차별 지각)에 있어서 성지위 정당성 혹은 학벌 지위 정당성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들(혹은 명문대출신)에 있어서도 여성들(비명문대 출신)보다는 약화된 형태이지만 성별 지위(학벌 지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지각할 때 여성 차별(혹은 학벌 차별)의 심각성을 높게 지각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또한 안미영과 김혜숙의 연구(2003)에서 나타난 바, 고지위 집단 구성원(즉, 남성)은 그 집단 지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에 대한 거부감을 덜(역)차별로 지각하였다는 연구 결과는, 다수 집단은 자신의 집단의 지위의 정당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한편 자신이 속한(다수) 집단에 대한 역차별 지각을 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남성이나 명문대 출신 등 다수 집단의 소수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 행동이나 편견적 태도를 감소시

키고 차별 철폐를 위한 여러 정책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은, 이들 다수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여성이나 비명문대 출신 등 소수 집단들이 그 집단 지위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성별 지위나 학벌 지위의 부당성을 지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Jost 등(2001)이 제안한대로 사회정체이론과 체제정당화 이론을 통합하여 집단지위 정당성과 안정성의 사회구조적 요인들과 집단정체성이 차별지각 및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성차별과 학벌차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사회정체이론은 이러한 지각된 사회구조적 요인이 사회정체성과 내집단 편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고, 한편 체제정당화 이론은 집단 지위의 지각된 정당성이 차별 귀인과 외집단 편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이 지위의 정당성과 안정성 지각에 따라 다르게 영향받아 차별 경험 지각이 나타났음을 밝혔고, 또한 사적 정체성의 영향도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났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는 보다 방대한 변인들을 포함한 전체 자료의 일부로 구성되었고 그 결과 성별 정체성이나 학벌 정체성에 관한 자료가 일부만(즉, 여성 정체성과 명문대 정체성) 포함되었다. 따라서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의 정체성의 영향과 지각된 지위구조 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이 일부의 자료들만에 근거해 검토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수와 소수 집단의 정체성의 자료를 보다 상응되게(comparable) 구해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정체성과 차별 경험과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각된 구조 요인, 사회정체성, 차별지각 및 내집단편애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사회정체이론과 체제정당화 이론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성이나 비명문대 출신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에서의 지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지각될수록 더욱 커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스트레스와 우울, 불만족 및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들이 겪는 이러한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 정당성의 실질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참 고 문 헌

- 김금미, 한영석 (2002). 여성의 합법성, 안정성 및 성별 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1-20.
- 김금미, 한덕웅, 한영석 (2003). 남성의 성별관계 인식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1), 31-47.
- 김범준 (2002). 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1), 1-18.
- 김양희, 정경아 (2000). 한국형 남녀 평등의식 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23-44.
- 김진국 (1987). 영호남 대학생의 상호간 차이지각 연구 사회심리학 연구, 5, 113-148.
- 김혜숙 (1993).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53-70.
- 김혜숙 (1994). 한국집단지아존중척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8(1), 103-116.
- 박군석, 한덕웅 (2003). 영호남인의 사회구조 요인 지각과 사회정체성이 상대박탈과 집합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2), 59-72.
- 안미영, 김혜숙 (2003). 집단 지위와 정당성 및 안정성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3), 159-179.
-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 (2004). 집단의 지위, 정당성 및 안정성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지각이 차별 경험에 미치는 영향 : 성별 집단과 지역 집단의 경우. 한국 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8(2), 107-135.
- 안신호 (2000). 투표에서의 연고주의 : 집단주의 경향성과의 관계 및 지지 동기.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문제, 6(1), 145-180.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5, 82-92.
- 정진경 (2000). 남북한간 문화이해지. 조한혜정, 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367-422. 서울 : 삼인
- 홍영오, 이훈구 (2001). 암묵적 연합 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185-204.
- Branscombe, N. R., Schmitt, M. T., & Harvey, R. D. (1999). Perceiving pervasive discrimination among African-Americans : Implications for group identificatio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35-149.
- Clary, E. G., Snyder, M., Ridge, R. D., Miene, P. K., & Haugen, J. A. (1994). Matching messages to motives in persuasion : A functional approach to promoting volunteeris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3), 1129-1149.
- Crocker, J., Cornwell, B., & Major, B. (1993). The stigma of overweight : Affective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ambig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0-70.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Crosby, F. (1982). *Relative deprivation and working wome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Crosby, J. J., Pufall, A., Snyder, R. C., O'Connell, M., & Whalen, P. (1989). The denial of personal disadvantage among you, me, and all the other ostriches. In M. Crawford & M. Gentry(Eds.), *Gender's thought :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 79-99). New York : Springer-Verlag
- Ellemers, N. (2001). Individual upward mobility and the perceived legitimacy of intergroup relations. In J. T. Jost & B. Major(Eds.), *The psychology of legitimacy : Emerging perspectives on ideology, justice, and intergroup relations*(pp.205-222).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emers, N., Doosje, B. J., van Knippenberg, A., & Wilke, H. (1992). Status protection in high status minority 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23-140.
- Ellemers, N., van Knippenberg, A., & Wilke, H. (1990). The influence of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and stability of group status on strategies of individual mobility and social change. *British*

-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233-246.
- Ellemers, N., Wilke, H., & van Knippenberg, A. (1993). Effects of the legitimacy of low group or individual status on individual and collective status-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66-778.
- Fiske, S. T. (1998). Stereotyp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2, pp.357-411). New York : McGraw-Hill.
- Gaertner, S. L., & Dovidio, J. F.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 F. Dovidio, Diego, CA : Academic and S. 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pp.61-89). San Press.
- Gastil, J. (1992). Why we believe in democracy : Testing theories of attitude functions and democrac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6), 423-450.
- Herek, G. M. (1987). Can functions be measured? A new perspective on the functional approach to attitud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85-303.
- Hogg, M. A., & Abrams, D. (1988). *Social identifications*. New York : Routledge, Chapman & Hall.
- Inman, M. L., & Baron, R. S. (1996). Influence of prototypes on perceptions of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27-739.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27.
- Jost, J. T., & Burgess, D. (2000). Attitudinal ambivalence and the conflict between group and system justification motives in low status 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293-305.
- Jost, J. T. (2001). Outgroup favoritism and the theory of system justification : An experimental paradigm for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uccess on stereotype content. In G. Moskowitz (Ed.), *Cognitive social psychology : The Princeton symposium on the legacy and future of social cognition*. Hillsdale, NJ : Erlbaum.
- Jost, J. T., Burgess, D., & Mosso, C. O. (2001). Conflicts of legitimation among self, group and system : the integrative potential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In J. T. Jost & B. Major(Eds., 2001). *The psychology of legitimac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ppen D. M., & Branscombe, N. R. (2001). The effects of reasons given for ineligibility o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feelings of injust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295-313.
- Katz, I. (1960).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 163-204.
- Katz, I., & Hass, R. G.(1988). Racial ambivalence and value conflict :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Kobryniewicz, D., & Branscombe, N. R. (1997). Who considers themselves victims of discrimination? : Individual difference predictors of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in women and 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347-363.
- Levin, S., Sidanius, J., Rabinowitz, J. L., & Federico, C. (1998). Ethnic identity, legitimizing ideologies, and social status : A matter of ideological asymmetry. *Political Psychology*, 19, 373-404.
- Luhtanen, R., & Crocker, J. (1991).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302-318.
- Major, B. (1994). From social inequality to personal entitlement :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s, legitimacy appraisals, and group membership.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6, pp.293-348).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Major, B., Gramzow, R. H., McCoy, S. K., Levin, S., Schmader, T., Sidanius, J. (2002). Perceiving personal discrimination : The role of group status and legitimizing ide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3-115.

- Psychology*, 82, 269-282.
- Mummendey, A., Kessler, T., Klink, A., & Mielke, R. (1999). Strategies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 Predictions by social identity theory and relative depriv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229-245.
- Olson, J. M., & Hafer, C. L. (2001). Tolerance of personal deprivation. In J. T. Jost & B. Major(Eds.), *The psychology of legitimacy : Emerging perspectives on ideology, justice, and intergroup relations* (pp. 157-175).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nton, W., & Major, B. (1997). Prejudice perception : The effect of group identification and the perception of justice. Paper presented at the colloquium of UCSB.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ggiero, K. M., & Taylor, D. M. (1995). Coping with discrimination : How disadvantaged group members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26-838.
- Ruggiero, K. M., & Taylor, D. M. (1997). Why minority group members perceive or do not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 The role of self-esteem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373-389.
- Schmader, T., Major, B., Eccleston, C. P., & McCoy, S. K. (2001). Devaluing domains in response to threatening intergroup comparisons : Perceived legitimacy and the status value asymmet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782-796.
- Tajfel, H. (Ed.)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33-48).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7-24). Chicago : Nelson-Hall.
- Taylor, D. M., Wright, S. C., Moghaddam, F. M., & Lalonde, R. N. (1990). The 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 : Perceiving my group, but not myself, to be a target for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 254-262.
- Taylor, D. M., Wright, S. C., & Porter, L. E. (1993). Dimension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 The 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 In M. Zanna & J. Olson(Eds.), *The psychology of prejudice : The Ontario Symposium* (Vol.7, pp.233-255). Hillsdale, NJ : Erlbaum.
- Turner, J. (1978). Social comparison, similarity and ingroup favouritism. In H. Tajfel(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235-250). London : Academic Press.
- Turner, J., & Brown, R. (1978). Social status, cognitive alternatives and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235-250). London : Academic Press.
- Tyler, T. R., & McGraw, K. M. (1986). Ideology and the interpretation of personal experience : Procedural justice and political quiesc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42, 115-128.

The Effect of the Perceived Legitimacy and Stability of Group Status and the Group Identity on the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Hai-Sook Kim

Ajou University Korea

Su-Mi Park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alities of Koreans'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through survey data, as well as the effect of perceived social structure (i.e., status legitimacy and stability) and the group identity of the members of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groups, on the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2000 men and women participated in this nation-wide survey.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Koreans perceived the discrimination toward the disabled, toward people of lower education (and people who graduated from less prestigious colleges) and the foreign laborers as the most serious in Korean society. Also as expected, women or people of lower education experienced greater discrimination the more they perceived that the existing status of groups was illegitimate, in comparison with men or people who graduated from prestigious college. Furthermore, women reported greater experiences of being discriminated against as their private collective self esteem of being a woman increased, while people of higher education reported less experiences of being discriminated against as their private collective self esteem increased. Unexpectedly, the effect of perceived group status turned out to be inconsistent. The practical an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social identity theory as well as the system justification theory.

Key words :

원고접수 : 2006년 10월 16일

심사통과 : 2006년 11월 8일